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17년 7월 9일 오전 11시

알바노 라지알레(로마) 모원에서,

쥬세피나 파스퀴나 페레리 수녀님 선종

84세, 66년 간 수도생활

연중 14주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로마 8,11) 전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빠스퀴나 수녀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느님께 평온하게 봉헌하셨으며, 선한목자의 인도를 받아 성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쥬세피나는 1932년 9월 19일 Corvaro (Rieti)에서 태어나 같은 해 10월 15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6형제 중 막내로 태어 났으며 그들 중 세 명이 빠스토렐레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사랑, 정의, 연대의 큰 가치들을 가르친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로부터 받은 결코 잊지 못할 신앙의 증거를 항상 기억했습니다. 증거의 삶은 수녀님과 앞서 수녀회에 입회한 비첸자와 루이지나 수녀인 다른 두 자매의 성소를 성숙시키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1947년 9월 12일 젠자노(로마)에 15세가 되어 마침내 수도회에 입회하여 자신의 두 자매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고, 자신의 전 삶을 선한 목자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 8월 14일, S. Pietro alle Acque (PG)에서 수련기를 시작했고, 다음 해 1950년 8월 15일에 빠스퀴나라는 수도명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그 후 바로 Transacqua (TN)로 파견되어 1952년까지 사도직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목체험 시기에 빠스퀴나 수녀님은 “나는 약하고 내 힘 만으로는 무능력하지만 주님의 은총의 힘에 자신을 맡깁니다”라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1952년부터 1955년까지, 빠스퀴나 수녀님은 알바노 라지알레(로마)공동체에서 1955년 8월 6일 종신서원을 하기까지 면학을 했습니다.

1955년부터 2005년까지 Consadolo (FE); Solara (MO); Peschiera Borromeo (MI); Rieti e Cittaducale (RI)본당에서 사목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빠스퀴나 수녀님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위해 알바노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도직 안에서 전례와 교리교육에 힘썼으며, 어떤 본당에서는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으며 몇몇 공동체의 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수도회와 기도를 사랑하고, 자신의 성소를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젊은 수녀들에게 자기가 처음 수도회에 입회했을 때 겪었던 많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생하고 가난했지만 빠스토렐레에 속하는 것과 창립자를 자주 만났던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빠스퀴나 수녀님은 어려움 중에 강인했으며, 사목을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목의 다양한 협력자들, 특히 평신도들과 협력의 관계를 맺을 줄 알았으며, 그들은 수녀님의 능력과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리에띠 교구에서 거의 30 여년 간, 수녀님은 교구차원의 교리교육 사목에 헌신했습니다. 12년 간 가정사목위원회에서 일했으며, 10년 간 이태리 수도자 장상 연합회(USMI)의 교구대표로 활동했습니다.

2005년에 알바노 모원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사목생활에 대한 수녀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실제로 알바노 주교좌 본당인 San Pancrazio 에서 교구 사목위원으로 사도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일년 반 전에 빠스퀴나 수녀님은 위를 수술했으며 위중해져 입원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며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평온하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상태가 나빠지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선한 목자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빠스퀴나 수녀님, 사목 사명을 위해 당신의 삶을 헌신하셨고, 병중에도 사도직을 위해 제물로 봉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9차 총회의 마지막 단계를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을 선한목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도우심에 맡겨드리며 당신을 천상에 계신 빠스토렐레들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Sr Marta Finotelli
총장

로마, 2017년 7월 9일

연중 제 14 주일